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2 | 2 | 제157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 매월 2째주 혹은 3째주 주일의 복음 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성호경/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 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 길잡이에서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펴면)

[1] 주님초대하기

[2] 하느님 말씀

1) 복음말씀을 읽는다.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5] 말씀살기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6] 마침기도

소공동체 모임 순서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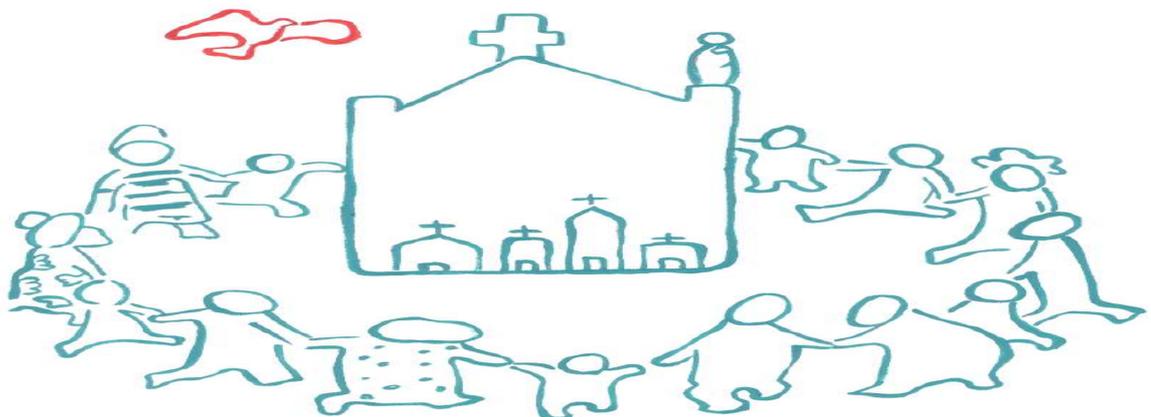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9.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복음 나누기

연중 제6주일(2월 13일)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루카 6,17. 20-26)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37번 "행복한 사람들"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 복음 6장 17절,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와 17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20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21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22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23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24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25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26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루카 6,20)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루카 6,26)

하느님께 인정받으려 애쓰기보다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에 마음을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을 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불행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말씀은 뜻밖입니다. 먼저, 가난한 사람을 '행복하다' 고 하십니다. 행복의 우선 조건을 '돈' 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는 난감한 표현입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주변을 살펴보니 부자라고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닌 듯합니다.

다음은, 굶주리고 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어찌 행복하다 하시는지요? 풍요와 웃음이 행복의 '절대 조건' 아닙니까? 세상의 판단과 너무 다른 말씀입니다. 하지만 '서럽고 병약한 사람들' 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느님 나라' 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본시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주셔야 '참행복' 에 닿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주시지 않으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돈과 재물이 넘쳐도 주시지 않으면 '불안한 행복' 으로 비취집니다. '주님의 힘' 이 함께해야 건강한 행복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쉽게 믿음을 가집니다. 삶의 어려움이 깊어지면 기댈 곳은 주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함께하시기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37번 "행복한 사람들"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복음 나누기

연중 제7주일(2월 20일)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루카 6,27-38)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5번 "사랑의 하느님"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 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7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 주고, 28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29 네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네 겹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30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31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32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33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 주는 이들에게만 잘해 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34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꾸어 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꾸어 준다. 35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36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37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38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복음 나누기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루카 6,27)

미운 그 사람도 하느님의 자녀라는 생각과 마음가짐이 있습니까?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루카 6,31)

형제자매,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바람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남을 심판하지 말라' 고 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성인聖人입니다. 아니, 남을 심판하지만 않아도 성인 반열에 들 수 있습니다. 원수는 '한이 맺힐 정도로 해를 끼친 사람' 입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지만 미운 사람은 자주 만납니다. 미운 짓을 하는 이들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나쁜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쁜 소문' 을 내고 싶어집니다. 그럴 기회도 자주 옵니다. 그럴 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가 시작된다고 하십니다.

용서는 덕입니다. 평생 쌓아야 할 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순간에 용서하려 듭니다. 이것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기회가 오면 늘 '좋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조금은 좋아 보입니다. 험뜯고 비난하는 것보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은총이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서서히 조금씩 '좋게 생각하는 것' 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 역시 그렇습니다. 상대의 입장에 서주는 자세가 용서의 출발입니다. 사랑과 용서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사랑하고 지금 용서하면 그것이 시작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복음 나누기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9번 "우리 모두 함께 모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함께하는 소공동체

코로나19 그리고 소공동체의 시련 사천본당 구역분과장 백현숙(소화데레사)

2022년 설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사천본당 소공동체는 4구역 1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녀노소의 비율이 적당히 균형 잡힌 본당 공동체입니다. 60여년 동안 자리 잡힌 신앙은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았지만,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개선해야 할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든 소공동체모임이 사라지고, 미사가 수시로 중단되는 등 급박한 상황에서 소공동체 반장님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전 신자에게 주요한 공지내용과 녹취, 영상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가피하게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자를 위해 신부님 주일 강론 말씀을 녹음하여 전송하고 신부님들을 초청하여 준비한 견진 특강이 인원 제한으로 인해 모든 신자들이 함께할 수 없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공유하는 등 사각지대에서 소외되는 신자들이 없는지 항상 챙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SNS 사용에 서투른 고령의 반장님이 더러 계셨는데, 어렵지만 사용법을 익히셔서 공지 전달에 대한 답변과 함께 이모티콘으로 메시지를 주실 때면 정말 든든하고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크고작은 본당행사를 비롯한 본당청소, 장례/연도, 전례봉사 등이 대부분 소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에 반장님들의 심적 부담이 컸습니다. 그렇다보니 자연스레 반장을 꺼리게 되고,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기한도 없이 반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사정이 생겨 기존의 반장이 책임을 못하게 되면 공석이 되는 소공동체가 하나, 둘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동시에 봉사자분들이 점점 고령화 되고, 젊은 신자들의 동참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이, 코로나19와 함께 이웃사랑 실천의 불씨가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당 신부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정리하시면서 반장님들의 부담이 덜어졌습니다. 먼저 본당 청소는 희망 신자에 한해서 조를 편성하여 운영되도록 개선해 주셨고, 정비된 지 10여년이 넘은 반구역도 현 신자 거주 분포와 맞게 효율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위축되어 버린 소공동체를 외면하고 앉고, 혼인잔치 때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에 미리 기름을 채워 두는 것처럼 항상 미리 깨어 준비하고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동시에 예수님이 가장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빛나는 자리에 사천 공동체가 있기를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소공동체 역할배분 ①

소공동체는 '작은 교회' 이자 '함께 참여하는 교회' 로 구성원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공동체에서 반장이나 서기에게만 많은 역할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성원 개개인이 소공동체 모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역할을 배분하면 좋습니다.

☞ 반장, 서기, 복음나누기 진행 담당, 선교담당, 봉사활동 담당, 회계담당

이때 역할배분이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호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각 담당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반장의 역할

- ① 모임 전 소공동체 구성원의 연락망을 가동해, 모임 장소와 시간, 준비물 등을 공지하고 적극 참여를 유도합니다.
- ② 모임 공백기 동안 구역과 반, 넓게는 본당의 특이 사항이나, 알림사항이 있으면 메모해 둡니다.
- ③ 서기에게 협조를 구해 지난 모임 회의록을 꼼꼼히 읽어둡니다.
- ④ 지난 모임에 계획한 활동사항에 대한 평가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 ⑤ 소공동체 모임 진행자 및 각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해 역할을 숙지하도록 권고합니다.
- ⑥ 모임 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중재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진행자가 복음나누기 진행순서에 따라 진행하지 않고 임의대로 진행하거나, 한 개인이 나눔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기타 소공동체 모임 성격에 너무 어긋나는 몸짓 혹은 기도를 요구할 때 등).
- ⑦ 소공동체 모임과 복음나누기를 위한 전체적인 준비를 점검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리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